

2020 **꿈** 을 쏘다 <9> 국악인 김보배

“우리 국악 알릴 수 있는 무대 어디든 찾아갈 것”

창작국악부터 전통국악까지 뿌리를 두면서도 과감한 실험정신으로 대중에게 다가서는 사람이 있다. 퍼커션, 마라카스 등 외국 악기로 국악을 연주하고 우리 음악을 알릴 수 있는 무대는 가리지 않고 찾아가며 국악의 즐거움을 널리 알리고 있는 김보배(32)씨가 그 주인공.

김 씨는 현재 순천을 기반으로 활동중이며 미국, 중국, 멕시코 등 세계무대에도 수차례 올랐다. 또 오는 6월에는 캐나다 민족음악 공연에도 참여한다.

고등학교 때까지 노래하고 춤추는 것은 그저 취미였다는 김 씨는 고등학교 1학년 음악시간 수행평가로 민요를 부르면서 국악의 길에 들어섰다.

“수행평가 곡이 ‘진도 아리랑’과 ‘경복궁 타령’이었어요. 음악선생님이 제 노래를 듣고는 국악을 해보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셨죠.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다른 전공자들보다 한참 늦은 나이였고 평생 공부만 해왔던 터라 지금 아니면 언제 국악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아니면 평생 못할거같아서 도전했습니다.”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김 씨는 학교장의 추천으로 남원 국악예술고등학교로 전학을 갔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제8회 여수진남전국국악경연대회 판소리 고등부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빨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무대에 뛰어들고 싶었던 그는 3년제 명신대학교 전통공연예술학과에 진학했다. 이후 공연 무대, 대학 교단 등 스승인 김병해씨를 따라다니며 활동을 시작했다.

“김병해 선생님은 일에서도 삶에서도 제 멘토이신 분이죠. 수습직원이거나 인턴처럼 저를 항상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쳐 주신 분이예요. “빨리 크려면 현장을 다니면서 봐야한다”고 말씀하시면서요. 공연 무대 뒤쪽에 그림자처럼 작은 역할도 맡게 해주셨어요. 저를 굉장히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면서도 질책도 많이 하세요. 선생님 덕분에 하루라도 빨리, 한번이라도 많이 무대에 서게 되면서 저



美·中 등 무대에...6월 캐나다 민족음악 공연
외국악기로 국악 연주...창작·전통국악 알려
예술가활동사업·전남도립국악 공연 등 참여
공연·교육 함께...초·중·고서 국악교사로 활동

만의 경쟁력이 생긴 것 같아요.”

김 씨의 첫 완창 무대는 2011년 선보인 강산제 심정가 완창발표회였다. 5시간에 걸친 공연이었고 준비부터 무대를 마치는 것까지 지나간 마라톤이었다. 수년간 준비하며 땀 흘렸고 공연 한달전부터는 하루에 한번씩 5시간 완창을 하며 준비했다. 리허설할 때까지만 해도 심정이 터질 것 같았는데 막상 무대에 오르니 마음이 차분해졌다. 무대가 끝난 뒤에는 허탈감이 있었지만 뿌듯함도 컸다. 이후 2015년 다시 한 번 심정가 완창 발표회를 가졌다.

대학교 때부터 1년에 최소 10번 이상 무대에 섰다는 김 씨는 2016년부터 창작국악단 도드리 단원으로 활동중이다. 또 지난해부터는 매일 마지막주 토요일마다 순천 드라마 촬영장에서 하는 국악공연에 재능기부로 출연하고 있다. 이밖에 전남도립국악단 토요공연, 제미입양정소녀 모국방문 체험 국악공연, 우리민속 한마당 한양을 적시다, 2019 무대공연작품지원사업 ‘매산매해’ 공연, 2019 청년

예술가활동지원사업 창작국악프로젝트 김보배의 화음(花音)공연 등 수많은 공연에 참여했다.

김 씨는 “무대에 오르는게 너무 재밌다”며 “다행히도 지금껏 슬럼프 한번 겪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 국악을 할테지만 지금 할 수 있을 때 공연을 많이 하는게 좋지않을까 하는생각에 쉽없이 무대에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주로 ‘화초타령’, ‘배꽃타령’ 등 창작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전통의 뼈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중간중간 레게풍 같은 서양적인 요소를 첨가하는데 대중들은 친근하면서도 새롭다는 반응이다. 또 사물놀이, 한국무용, 창작가요, 무용, 소리극, 미니창극 등 다양한 레퍼토리의 공연을 선보인다.

2017 한국-멕시코 문화콘텐츠 교류 초청공연, 2018 미국 3개주 전통예술초청공연 등 해외 공연에도 꾸준히 참여해 온 김 씨는 오는 6월 캐나다에서 열리는 캐나다 민족음악 관련 무대에도 초청을 받았다.

“6월~7월 캐나다에 머무르며 재능기부로 다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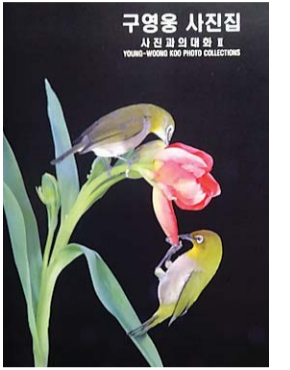
한 형태의 국악무대를 보여주고 올 예정입니다. 그 지역의 민족음악 저변확대를 위해 마련된 공연이예요. 이처럼 한국을 넘어 외국과 연계한 무대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외국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국악의 장을 넓히고 한국의 문화컨텐츠를 알리는데 보탬이 되고자 노력중입니다.”

이와 함께 올하는 교육에도 힘을 쏟고 싶다는 김 씨는 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초·중·고등학교 음악 교사로 교단에서 국악을 가르치고 있다. 더욱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진주교대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기도 했다.

“공연과 교육을 함께 하고 싶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보람차고요. 또 요즘 송가인씨 덕분에 국악이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국악 자체가 주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국악이 어렵다는 편견을 없애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게 최선일것죠. 제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로 국악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구영웅 작가 ‘사진과의 대화 III’ 아름다운 한국의 사계절 담아

구영웅 사진작가
가 최근 사진집 ‘사
진과의 대화 III’를
출간했다.



이번에 새로 선보인 사진집에는 아름다운 한국의 사계절 풍경사진과 전국 각지에서 펼쳐진 흥겨운 축제 현장 사진, 새와 꽃사진 등 모두 370여점이 실렸다.

한국사진가협회 정회원으로 자문위원도 맡고 있는 구 작가는 지금까지 일곱차례 사진전을 열었으며 개인전 수익금은 불우이웃과 아프리카 어린이를 위해 기부하기도 했다.

올해 81세인 구 작가는 수필가로도 등단, 일상에서 느낀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글과 함께 사진 150점이 어우러진 수필집도 출간했다.

또 어르신들로 구성된 은빛합주단 지휘자로 오랫동안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앙로원과 요양원 등을 찾아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

구 작가는 IPA국제 사진전에서 금상을 받았으며 유네스코 ‘ETERNAL ASIA’에 작품이 게재되는 등 지금까지 국내외 콘테스트에서 70여차례 수상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지역 문화생태계 구축 통합공모’ 3월 6일까지 지자체 모집

지역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별적으로 지원했던 6개 지역문화사업이 통합 지원된다.

문화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은 ‘지역 문화생태계 구축 통합공모’ 사업에 참여할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다음 달 6일까지 모집한다.

대상 사업은 세대 간 멘토링 프로그램인 ‘인생나눔교실’을 비롯해 신장년(50~65세) 대상 생애전환기 문화예술교육 ‘신장년 문화예술교육’, 이주·민·탈북민·장애인을 지역문화기관과 연결하는 ‘무지개다리’ 등이다. 또한 지역주민 문화예술교육인 ‘문화이모작’, 지역 맞춤형문화예술 지원사업인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지역 문화인력을 발굴하는 ‘지역문화 전문인력 배치’도 포함됐다.

이번 통합 지원은 수요자 중심 지역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4~5개 기초 지자체를 선정해 최대 2년간 연 3억원까지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참여할 기초 지자체는 사업을 수행할 주관 단체를 지정하고 운영전략,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해 문화부에 제출하면 된다.

참가 신청은 지역문화진흥원에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며 전라권 사업설명회는 21일 오후 2시 광주역 회의실 무등산실에서 진행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극장, 전쟁을 다루다

20일 ‘작가미상’·27일 ‘빈폴’·3월1일 ‘기억의 전쟁’ 개봉



‘작가미상’

제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등 전쟁을 다룬 영화 세 편이 광주극장에서 개봉한다.

20일 개봉하는 ‘작가미상’은 플로리안 헬켈 폰 도너스마르크 감독의 신작이다. 모든 기준이 흐트러진 세상에서 아름답고 선행한 진실을 그린 화가이자 전쟁과 이념으로 얽힌 비극적인 가족사와 자신의 인생을 그린 화가 쿠르트트의 일대기를 담고 있다.

독일 화가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실화를 그린 작

품으로, 혼란한 세상 속 예술가의 역할을 보여주며 더 큰 감동을 자아낸다.

27일 개봉하는 ‘빈폴’(Bean Pole)은 2차 대전에서 살아남은 두 여인이 서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희망과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서는 과정을 그렸다. 제2차 세계대전 폭격에도 살아남은 도시 레닌그라드의 모습을 고스란히 재현한 영화는 섬세한 감정을 담아낸 연출과 함께 뛰어난 영상미로 극찬을 받고 있다.

칸테미르 발라코프 감독은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의 책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길보라 감독의 신작 ‘기억의 전쟁’(3월1일 개봉)은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의 손녀인 이길보라 감독이 할아버지의 침묵에 대한 궁금증을 안고 찾아가던 베트남에서 듣게 된 50여 년 전 그날의 기억을 담아낸 다큐멘터리다. 베트남 전쟁 당시 일어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담아낸 영화는 그날의 현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껌 아저씨의 손발 등 희생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을 통해 지금까지 기록되지 못한 역사를 이야기한다.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비프메시나상을 수상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2020년에도 “**각종 연회 행사**”는 **벤틀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메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